

나를 세우는 망대의 삶 (삼상 19:18-24)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인줄 믿는다. 왜냐하면, 요즘 4교구와 5교구가 자체캠프를 맞이하여 매주 토요일에 현장 캠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만 그 복음을 알아 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는 이것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뭘을 모르냐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되는가?? 나의 노력으로 살게 된 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인생을 함부로 살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확 다른 것이다.. 적어도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시기 바란다.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그 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 음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 로 살아갈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나의 인생이 하나 님이 수고했다 인정해주는 삶을 살수 있을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아야 오늘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의미가 있을까? 오늘 제목이 나를 세우는 망대의 삶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 로 설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오직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이 답은 사실,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너무나 사실인데, 구체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답으로 잡고 사는 삶은 바 로 망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는다.

요즘에 망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이번에 세계선교대회에서도 망 대라는 단어로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는 망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대를 세우시는 것이다. 그것도 가장 높은 곳을 세우는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꾸 사단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린 다. 그래서 그 망대에서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하여 성이 함 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 뿐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 에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이다.

빌 4: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잘 모르지만 나의 인생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염려 너머에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 획을 의지하면 지금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히 이겨나갈수가 있 는 것이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시는 것이다. 망대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 시고, 망대를 보고 따라오라고.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그 망대의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 중에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머물지 않고 기꺼이 복음을 전달하는 인생을 살아가 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과고 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저절로 전도 하는 사람없고, 하기 싫는데 자 기도 모르게 전도 현장으로 발이 움직이는 사람도 없다. 분명한 것은 하 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망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다. 왜냐하면 망대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은 왜 사는가에 대한 의미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삶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가진 돈도, 성공도, 명예도, 권 력도 다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가? 세상의 것들은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라도 사라질수 있는 것들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나의 인생도 길을 잃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 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썩어질 잘못된 것을 목적삼지 말고, 사람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것이 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최고로 누리며 살 아갈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시는 것이 아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안 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목적이 제

대로 되어 있는 삶을 살라고 망대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만일 나의 인생이 이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 될 때 나의 인생은 가장 값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 역할은 큰 일 하 시는 바깥 양반들만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더 큰일 하시는 집안 양반 들도 다 할수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 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이런 망대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순 간부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해오셨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가 발견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응답이구나. 이것을 발견해서 망대로서 우리들 의 자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면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이 제대로 세워졌다고 말할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결단코 없 을 것이다. 한번 사는 인생,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 져야 할 것이다. 미국과 남미, 다민족, 램넌트 전도와 선교는 반드시 우리 가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위해 세워진 망대인 나는 먼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 해서 저는 이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 한 방향과 이유과 목적으로 붙잡을 때, 미래 세대를 위한 망대, 미국과 남미, 땅끝까지 비추는 망대, 절대적인 구원의 망대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는다. 또한 망대라는 단어가 단지 전도를 위한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현재와 미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단어가 될 줄로 믿는다.

그러면 내가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 는가?

1.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 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무력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들이다. 이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능력을 잃어 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으로부터 떠나버린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 능력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 오게 되는가?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귀로 듣는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순종하라는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답 으로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은 나 중심으로부터 하 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동하게 한다.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다면 엘리제사장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긴후 하나님의 도움 으로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기앗여아람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십년동안 머물게 된다. 언약궤가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 지성소 안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해야 할 기본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성 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 어 오는데 항상 뺏기고 고통당한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 성이 여기 있다 만천하에 알렸던 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이었다. 그러자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공격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이 패하게 만드셨다.

메시지가 무엇인가? 절대 하나님이 지키면 못 이긴다. 사무엘이 있는 동 안에 더 이상 블레셋이 쳐들어 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냐? 사무엘 때 문에. 사무엘이 있는게 왜 중요하나? 미스바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망대 라는 뜻이다. 또,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의 북서쪽 약 5마일 정 되는 위 치에 있는데,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미스 바가 예루살렘을 지키는 망대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망대 를 지키고 망대를 망대되게 했던 망대지기가 바로 사무엘인 것이다. 그 가 진정으로 망대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다 시 회개하고 돌이켜 언약 회복하게 한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게 한 것 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망대의 삶은 정말 중요한 일이

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은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 이 간단한 기본을 놓치지 않아야만 이 당대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단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속에서도. 사람들이 다 놓치고 다 우왕좌왕하는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이 기본만은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란다.

나의 삶이 사무엘과 같이 쓰여질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한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

2. 미래를 준비하라.

사무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사실 그가 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미스바 운동을 하고 나서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에게 기름부어 세웠다. 그 일 이후에 사무엘은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 그런데 그 후에 사무엘이 무엇을 했다면 후대를 세우는 일을 했다. 오늘 본문은 18절은 다윗이 골리앗 죽인후 사울을 피하다가 라마에 갔다. 거기서 사무엘의 고향이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부워 세웠는데, 그 사울과 관계가 틀어져 버렸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역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거기서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것이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었을 것이다. 에브라임 산지에 세웠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편하게 올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산골짜기에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숨을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곳을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나뭇에 가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나뭇은 기숙사라는 의미이다. 선지 생도가 같이 먹고 자는 기숙사 같은 곳에 같이 지낸 것이다. 그런데 19절에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다윗이 라마나뭇에 있다고 하니까, 군대를 보낸 것이다. 당장 다윗을 잡아오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잡으러 갔던 그 군인들이 함께 예언을 하게 된 것이다. 구약의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의미이다. 그 군인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일을 보고 21절에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알렸다. 그래서 또 다른 군사를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22절에 사울이 직접 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도 임했다는 것이다. 아직 도착도 안했는데, 사울은 가는 길에서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마 나뭇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한 것이다. 비밀길 올라가면서 찬양한 것이다. 완전 딴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고는 24절, 옷을 벗었다. 왜 옷을 벗었나? 사실은 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옷이다. 그래서 왕이 입는 옷이 있고 노비가 입는 옷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왕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순간에는 너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옷을 벗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울은 왕의 옷을 벗고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지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다. 보통 하나님은 대적들을 이렇게 다루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건드리면 흥해에 수장시키든지 18만 5천명을 하루 밤에 다 없애버리셨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온 사람들을 성령충만하게 만든 것이다.

왜냐하면 원수를 박살내는 것보다도 미래를 준비하는 이 공동체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다. 성경에 원수를 이런식으로 다루신 곳은 여기 밖에 없다. 선지자들을 훈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 곳에서, 군사들이 피토하고 죽어간다면, 이 신성한 현장에서 목이 날라가고 피바다를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충만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다. 그럴만큼 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해야할 망대운동은 내가 잘해야 하는 운동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운동임을 믿는다 그렇다면 이 기본이 지속적으로 전달될수 있도록 후대를 키우는 일에 나의 삶이 드러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은 과언이 아닐것이다. 이 미래세대가 준비 되어야 미국도 살리고 남미도 살리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단지 여기에 어른들이 계시고 렘넌트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렘넌트들 도와주고 세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시대적인 부흥운동들이 있었다. 요시아 왕때도 부흥운동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때도 부흥운동이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흥운동은 다음세대까지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시대의 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었던 드문 경우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시대와 엘리야 시대였다. 사무엘시대에 바로 이어서 다윗의 시대가 열렸었고, 엘리야 시대를 이어 엘리사의 시대가 있었다. 공통점은 선지자 학교를 세워 후대를 키워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지금의 렘넌트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망대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렘넌트들도 그 후대의 렘넌트들을 키우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평생을 망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복음운동도 끊어지지않고 지속되는 진정한 RUTC 운동이 될 줄로 믿는다.

가나안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후대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해서 사사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의 목표를 미래 세우는 일에 두고 살아간다면 나의 인생만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제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망대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사무엘은 알려진 이름의 무게에 비해서 감춰진 그 이면을 보면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다. 우리는 말씀으로 봐서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바쳐졌다는 것이 참 은혜롭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엄마품에서 자라야 할 아이가 절때자마자 성전예에서 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무엘이 섬기던 엘리제사장도 썩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다. 게다가 미스바 운동을 하고 나서 백성들은 바로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다. 사실상 왕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한 배신감이 느껴졌을 것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눈 밖에 나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울과도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서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인간으로 보면 사울의 인생이 결코 화려했다고 할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사무엘을 실패했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산 인생이 늘 망대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에게도 사실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무게들이 다 있을 것이다.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쉽게 가능할 수가 없다. 또, 나와 너의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겉모양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관 없다. 어떤 어려움 문제가 와도 그것이 나의 삶을 절때 넘어뜨릴수 없다.

하나 확실한 것은 그 어떤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사단의 어떤 방해가 우리를 가로 막는다 할지라도 망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세워지는 인생 될줄로 믿는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놀랍고 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증인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망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인생은 살리는 인생이였노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벅찬 마음으로, 아무런 후회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는다.

이 시간 이 놀라운 축복의 삶, 망대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망대의 삶에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최고로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한다.